

#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등 50곳 지적

## ■역사교과서 수정 권고안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논란이 된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30일 수정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교과서 내용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했는지 여부, 고등학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교과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현행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가운데 50개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권고안을 출판사 및 집필진에게 전달할 계획이어서 최종 수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정 권고안 주요 내용=교과부가 교과서 수정 작업에 착수한 이후 뉴라이트 계열의 지식인 모임인 교과서포럼, 통일부, 국방부 등 각 보수단체와 정부부처로부터 취합된 수정요구는 모두 253건이었다. 이 중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 102건에 대해서는 집필진

이 자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나머지 151건 가운데 55건에 대해서만 직접 집필진에게 수정을 권고하겠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집필진이 자체 수정 의견을 밝힌 102건은 주로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한 부분, 남북관계를 평화통일이라는 한가지 잣대로만 서술한 부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교과부, 내년 3월부터 수정된 교과서 배포

## 좌편향 논란 해소·집필진 수용 여부 미지수

교과부가 직접 수정을 권고한 55건은 수정요구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중복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교과서 내용상으로는 총 50개 표현에 대한 것이다.

특히 ▲8·15 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 ▲미·소 군정과 관련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료를 비교, 학습자를 오도한 부분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 ▲대한민국을 민족정신의 토대에서 출발하지 못한 국가로 기술한 부분 ▲북한정권의 실상과 관련하여 달리 서술한 부분 등이 대표적이다.

‘좌편향’의 대표적 내용으로 지적된 금성교과서의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는 부분은 분단의 원인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좌편향 논란 해소될까=교과부는 이번 권고안을 6개 출판사와 각 집필진에게 전달해 권고 내용이 내년 3월 각 학교에 배포될 새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집필진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권고 내용을 집필진이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교과부는 그러나 문제가 된 표현이 담긴 부분을 교과서에서 아예 통째로 들어내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용을 수정, 보완하라는 차원인 만큼 집필진 역시 큰 반발 없이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정권고 조치가 좌편향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연합뉴스

# “강만수 경질...거국내각 구성을”

## 이회창 선진당 대표 국회 연설



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과 후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30일 “은행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가 일단락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현 경제팀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면서 “(현 경제팀의 문책 후) 부분적인 거국 경제내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강만수 경제팀이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언론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의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의 대처방안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정부 개입 ▲여야정 정책협의 회 구성 ▲공기업 구조조정 등 공고한 경제를 확립 ▲비정규직 우선 보호 ▲대학등록금 동결 ▲쌀 직불금제 개선책 마련 ▲부분적인 거국내각 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으로는 ▲시장경제 원칙 준수 ▲공정한 경제체제 확립 ▲낙오자, 소외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경제체제 추구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경계 등을 주장했다. 이 총재는 “우리는 지금 제2의 도약을 하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6~7개의 소국으로 구성하는 ‘강소국 연방제’를 제안하며 “각 지방정부의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발전과 국가적 에너지의 개발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행정구역의 광역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 총재는 “작금의 안하무인적인 북한의 태도는 이명박 정부가 유발하고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비핵·개방·3000”은 불확실한 가정법에 의한 유령 같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김민석 최고위원 구하기’

## 영장심사 거부 등 초강경 대응...여론 '역풍' 우려도

민주당이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초강경 대응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김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야당탄압이자 민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구속수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검찰권 남용이므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당당히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졌

다”면서 “향후 행동지침은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1일로 예정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는 방안을 포함해 강경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처럼 민주당이 초강경 대응으로 가는 것은 김 위원이 당 지도부인데다 이번 사건이 자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검찰 영장청구에 이어 여론의 일련의 보복사건이자 야당 탄압의 일환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공당이 범죄 혐의자를 보호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방부, 장성 111명 정기인사 단행

국방부는 30일 장성 11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육군의 박성규(3사20기), 이흥기(육사33기), 조정환(육사33기) 소장이 중장 진급과 동시에 군단장에 보임됐다. 육사33기 출신은 이번에 처음으로 군단장에 진출했다.

해군 김정두(해사31기), 최원희(해사31기) 소장은 중장 진급과 동시에 각각 해군교 육사령관과 해사교장을 맡게 됐다.

공군의 김용홍(공사26기), 성일환(공사26기) 소장은 중장과 진급과 함께 각각 공군참모차장과 공사교장에 임명됐다. 오창환(공사25기) 공군참모차장은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연합뉴스

김종련(해사30기) 합참 인사군수본부장은 합참차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합참차장 직은 해군과 공군의 순환 보직이다. 모종화(육사36기) 육군준장 외 11명과 김동식(해사33기) 해군준장 외 1명, 권오성(공사27기) 공군준장 외 4명 등 19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및 주요 부서장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1977년 11월 하사에서 소위로 입관한 단기사관후보생 출신인 박의영(단간13기)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단기사관후보생이 장군으로 진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의 김규진 준장진급자는 입관시절부터 정훈병과를 선택해 장군으로 진급한 첫 케이스다.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9급 이문홍수반 7급 공소지민 7급

한빛고시학원

관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TEL:234-0234

개강 11월 3일

공무원합격 입도적 1위

민생안락반 9급 아권특성반

교육합격/종합합격/기술합격/사회합격/출판합격

한국전화번호부들 만나는 다양한 방법

SUPERPAGE

업종 및 상호 전화번호부

2008년 광고매김 임박! 광고문의 062) 512-1144